

문화



광주시향과 합창단, 시민합창단은 5·18 30주기인 2010년 서울과 광주에서 말러 교향곡 '부활'을 공연할 예정이다.

518

예술로 꽃 피운다

내년 30주기 맞아 광주예술단체 대규모 행사 준비

▲미술로 꽃피우는 5·18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내년 5월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추모 전시회를 연다.

특히 과거 5·18 관련 전시회가 역사적 사건을 전달하고 재현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전시는 미학적인 측면을 강조해 시민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 5·18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립미술관·비엔날레재단 공동 전시

이를 위해 시립미술관과 재단은 최근 3차례 실무자 모임을 열어 전시 기획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고, 예산은 각 기관에서 2억5천만원씩 내기로 했다.

전시 준비는 시립미술관 임종영 학예연구사, 재단의 오렐리 와강(32·Aurelie Wacquant·프랑스) 코디네이터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등 해외 미술관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 2~3명 등 모두 7명의 어시스트 큐레이터를 선임해 전담시키기로 했다.

다음 주 중 실무자 회의를 통해 주제와 형식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본격적으로 전시를 추진하게 된다.

▲공연으로 꽃피우는 5·18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은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현)과 함께 말러 곡 '부활'을 준비중이다.

지난 3월 취임 초기부터 5·18 30주기 음악회에 강한 애착을 보였던 구 지휘자는 특히 이번 기념 공연을 광주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다. 말러의 '부활'은 교향곡과 합창이 어우러진 대작으로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향 단원 80명 이외에 20여명의 객원단원이 참여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시민합창단'이다. '부활' 공연에는 광주시립합창단을 포함 각 구청 합창단, 아버지 합창단 등 일반 아마추어 합창단원을 비롯해 오디션을 통해 대학생과 일반인들도 선정, 350명 규모의 '시민합창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 공연은 내년 5월 18일 광주문예회관을 대관해 문 상태지만 옛 전남도청 앞 야외연주회를 추진중이다. 이곳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무대 시설이 갖춰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등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 공연의 경우 예술의 전당 대관에서 탈락하면서 세종문화회관 등 다른 장소를 모색중이다. 특히 서울 공연의 경우 아마추어 합창단원들이 대부분 직장인임을 감안, 토요일인 5월 15일 쏘예 무대에 설 계획이다.

시향 말러의 '부활' 광주·서울 공연

광주시향은 현재 광주시에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며 5·18재단과도 도청 앞 연주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은 2010년 5월 28~29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5·18 30주년 기념 창작 발레 '5월의 빛'(가제)을 선보인다.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5월의 빛'은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안녕을 기원하는 진혼무다. 현재 김단장은 모차르트의 '그레이트 미사' 등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구상중이며 전문 작가에게 대본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유미 단장은 "광주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인해 광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게 됐는지를 발레로 풀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오광복기자 kroh@



대중속 佛心심는 '포교 6인방'

혜인·명진·법륜 스님 등 광주법회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KT대강당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는 유명 스님들이 대거 광주를 찾는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 스님)는 지역불교계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까지 광주시 동구 KT정보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09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불교신 행단체들이 주관하고,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BBS광주 불교방송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 다섯번째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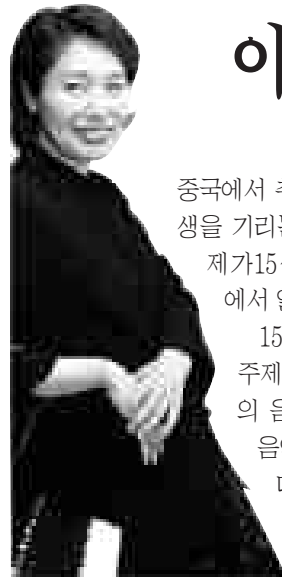
'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불교아카데미에서는 혜인 스님, 명진 스님, 법륜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서 수행 신념과 불교철학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 2009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일정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일자, 강사, 주제. It lists the schedule for the 2009 Light Valley Buddhist Academy, including dates like 10/27 and 11/3, and topics like '신심과 일력의 길' and '업력의 삶과 일력의 삶'.

이번 강좌 운영위원장을 맡은 증심사 주지 지장 스님은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불자 대중의 의식화와 불교 대중화를 추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라며 "새로운 법의 틀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해 불교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좌 참여를 위한 동참금은 3만원이다. 문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6-3223. /김대성기자 bigkim@



아! 정율성

중국에서 추앙받는 광주 출신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제5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15~1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15일 '만남과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막 공연은 정율성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음악인이 어우러진 무대로 꾸민다.

16일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대만 출신 지휘자 티

'만남과 소통의 장' 개막 공연

오늘부터 17일까지 문예회관

모르 올리버 차딩(전 다름슈타트 주립극장 수석 지휘자)이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 서곡과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선사한다. 또 세르게이 크라브첸코가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교수 겸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 E단조 작품 64'를 협연한다.

마지막 날은 피아니스트 백혜선(사진) 독주하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피아노소나타 F장조', 리스트의 '피아노소나타 B단조' 등이다.

한편 백씨는 16일 오후 2시30분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에서 공개 마스터클래스도 진행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511-1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디자인 전문가와 기업가의 만남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비즈니스 데이' 성황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11월4일)의 전시 작품을 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데이'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6~17일 국내외의 디자인 전문가와 업체 대표를 초청해 이번 전시의 산업화를 모색한다.

16일에는 국내 한글 전문가들이

모여 한글을 주제로 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글' 섹션을 관람한 뒤 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데이'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국문화원 송현 원장, 국립국어원 최용기 교육진흥부장, 문광부 관계자 등이 20여명이 이날 광주를 찾는다. 또 홍디자인 홍성택 대

표, 두성복스 백은정 편집장, 범우사 윤형두 대표, 경세원 김영준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7일에는 SK네트웍스 사업전략본부, LG디자인센터, 아이리버 관계자 등 디자인 관련 산업체·연구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꾸러진 팀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는다. /오광복기자 kroh@

A larg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부동산) featuring a grid of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agent information.